

에코댄스의 구성 원리 연구*

오레지나**

목 차

Abstract	2. 양생과 힐링의 원리
I. 서론	3. 신명의 원리
II. 에코댄스 프로그램의 구성	4. 놀이의 원리
III. 에코댄스의 구성원리	IV. 결론 및 제언
1. 명상-표현-실천의 3단 구성원리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construction of ecodance

Oh Regina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ecodance is an artistic activity that intends to overcome the crisis of eco-system, pursuing reverence for life,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ity. The ecodance program is not a mere repetition of certain movements but a reflection of true community and harmony with nature gained in natural flow of human movements.

The program of the ecodance consists of “the eco-philosophy,” “creative expression,” and “practice” based on the structure (ecothinking, ecobody, and ecomovement). It also includes “the spirit of Salim,” “healing,” “sinmyeong,” and “play.”

Our present culture, over-emphasizing rational and analytic way of thinking and artificially transforming nature, has lost harmony with nature and caused the anti-eco attitude. The way to overcome this mechanical approach to the universe is the ecodance, the form of art to practice eco-friendly view.

* 이 논문은 2012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2012. 7. 20. 심사일: 2012. 8. 10. 게재확정일: 2012. 9. 1.

key words: ecodance, construction of ecodance, educational meaning of ecodance, ecodance education, ecotthinking, ecobody, ecomovement

주요어: 에코댄스, 에코댄스의 구성 원리, 에코댄스의 교육, 생태적 사고,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

I . 서론

2010년 1월, NHK 특별 취재팀은 ‘인연이 없는 사회, 관계가 없는 사회’를 ‘무연사회(無緣社會)’라 이름 붙이고, 고령화, 저출산, 개인주의가 초래한 일본의 사회를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일본 전체의 가구 중 3분의 1이 홀로 사는 ‘1인 가구’(일본 후생노동성, 2011)이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혼자서 죽어 거두어 줄 사람이 없는 죽음 ‘고독사’, 현장에서 신원 혹은 연고자 확인이 안되는 ‘무연사’가 일본에서 3만 2천여 명 발생(NHK, 2011)했다고 한다. NHK의 취재에 의하면 일본에서 이렇게 무연사가 급증한 첫 번째 원인이 떨어져 가는 가족의 인연과 독신 인구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 자체의 수가 줄어들었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만혼화 현상이 독신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무연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EBS, 2012). 놀랍게도 NHK 취재팀이 취제한 이런 사회적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한국에서 독거노인이 102만명, 서울만 50세 미혼 인구가 150만명, 서울 1인 가구가 24%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이외에도 환경변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 교수 폴 엡스타인의 『기후가 사람을 공격한다(Changing Planet, Changing Health)』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일상을 파괴하는지를 방대한 연구와 사례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이미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섰으며, 자연이 아닌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질병 뒤에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오랜 연구와 추적 끝에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 기후변화였음을 깨닫게 된다. 해수온도 상승,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후진국형 전염병 백일해 집단발병, 열사병 환자 발생, 10년만의 가뭄, 말라리아·뇌염 비상, 후쿠시마 지진, 동유럽 한파, 미국 이상온난기온 등 기후와 관련된 이상 징후들이 수

도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지금 사람과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

무연사회와 기후의 변화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론이란 세계를 모든 현상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며, 이 기본 구조에서는 그 특성이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통합된 전체를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살아있는 조직체, 사회 및 생태계는 모두 시스템이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변형은 우리 시대의 변화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것이며 또한 여러 개의 주요 전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개인이나 정부 혹은 사회 제도만의 위기가 아닌, 지구 차원의 전이인 것이다. 개인으로서, 사회로서, 문명으로서, 전 지구의 생태계로서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모든 자연의 현상은 양극 사이의 연속적 진동의 표현이며, 점진적으로 단절 없이 진행되는 변화인 것이다. 자연 질서는 음과 양 사이의 역동적 평형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는 음(방어적, 통합적, 협동적인 것에 상응)보다는 양(공격적, 확장적, 경쟁적 행위에 상응), 직관적 지혜보다는 자연 이용을 일관적으로 선호하는 편중으로 심각한 문화적 불균형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가치와 태도, 우리의 사회적 및 정치적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Capra, 2009:43-51).

생태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태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생태교육은 생명존중교육, 상생교육, 자연친화교육을 중심으로 생태교육관을 모색(이종태, 1999, 노상우, 2003; 명지원, 2003; 강선보, 2007; 김창수, 2008; 문현진, 남상준, 2008; 변순용, 김나영, 2010; 오만석, 2011)하고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송순재, 2002; 신옥순, 2008; 장미연, 임재택, 2010; 김영옥, 2010)에 집중되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예술교육분야(장연자, 2007; Inwood, 2008; 이현민, 이상원, 2010; 及部克人(오요베 카츠히토), 2010; 이인화, 2010; 김정희, 2011; 박우찬, 2012)에서도 생태학적인 연구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다. 특히 생태학에 기초한 무용교육에 대한 연구는 에코소매틱 무용교육 방법의 필요성(Enghauser, 2007), 에코댄스의 개념 및 구조, 교육적 의미(오레지나, 2010; 2011a; 2011b), 생태주의에 기초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박지영, 2010), 무용교육에서 생태심리학의 적용(Burns, 2012) 등 최근 1,2년 동안 기초적인 수준에서 학문적인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새로운 생태관 교육이 핵심이 되는 시대에 본 연구는 현장 적용 가능한 에코댄스를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탐구하였다. 연구 과정은 에코댄스의 개념 및 구조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구성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에코댄스의 학문적 체계화와 실천적 구조의 확립에 초석을 놓고자 하였다.

II . 에코댄스 프로그램의 구성

생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서의 에코댄스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움직임이며,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신체를 매개로 나, 타인,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생태예술로서 에코댄스는 생태적 삶에 대한 의식 공유를 기반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움직임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에코댄스의 구조에서 생태적인 사고는 자연을 인위적인 형식 이전에 존재하는 질서로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한다. 생태적인 신체는 자연의 이치에 입각하여 인간의 몸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생태적 몸관(觀)에 기초하며, 우주에 질서가 있듯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어 그 질서를 회복하여 얻게 되는 온전한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신체를 의미한다. 생태적인 움직임은 생태적 사고와 생태적 몸관(觀)에 기초한 신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개체의 독특성과 개체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소통의 다양한 상징을 의미한다(오레지나, 2010:56, 2011b: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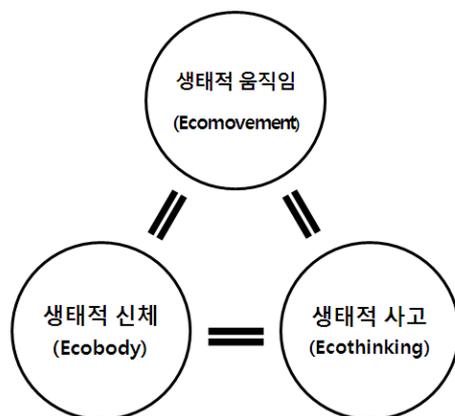


그림 1. 에코댄스의 구조(오레지나, 2011b:43)

에코댄스 프로그램은 단순한 움직임의 반복이 아닌 자신의 성찰로서 자연스러운 몸짓을 통해 획득되는 공동체와 자연의 어울림을 실천하는 나눔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러

한 에코댄스 프로그램은 에코댄스의 구조(생태적 사고,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를 바탕으로 생태철학과 창의적 표현, 실천적 삶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살림의 정신’과 ‘다움의 표현’, ‘어울림의 실천’이 가능한 무용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1. 에코댄스 프로그램 구성의 주요개념

Eco	Ecodance	Ecodance 프로그램의 구성
생명성	살림	생태철학
다양성	다움	창의적 표현
관계성	어울림	실천적 삶

Ⅲ. 에코댄스의 구성 원리

1. 명상-표현-실천의 3단 구성 원리

무용은 정신과 몸, 주체와 객체의 하나됨이며, 몸과 움직임, 움직임과 춤, 춤과 삶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 삶으로서의 예술이다. 에코댄스는 이러한 정신-마음-몸-움직임의 일체원리를 기반으로 생명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 본연의 질서를 되찾도록 하는 ‘살림’ 그리고 개체의 독특함 즉, 본디의 성질을 획득하고 완전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다움’ 마지막으로 유기적인 관계의 공동체성을 대변하는 ‘어울림’으로 설명되며(오레지나, 2011b:50), 생태철학과 창의적 표현, 실천적 삶으로 정리 될 수 있다.



그림 2. 에코댄스의 3단 구성 원리

1) 생태철학과 명상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는 약 5만년 전에 정지하였다. 이후 인류의 진화는 더 이상 유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의 문화는 이 문화적 진화 과정에서 환경을 지나치게 변형시켰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어떤 문화나 문명보다 생물 및 생태적 기반과의 접촉을 상실한 것이다. 이 분리는 지적 능력과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숙련의 일면과 지혜와 영성과 윤리의 다른 면 사이의 두드러진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방법과 합리적, 분석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심각한 반생태적 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태도 및 가치관에서 우리 문화가 양陽 즉 인간성 중 자기 주장적 성격인 남성 요소를 항상 북돋워 주고 보상해 준 반면, 음陰 즉 여성적 또는 직관적인 면을 무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도달하려는 전환점은 무엇보다도 음과 양의 변동의 역전逆轉을 의미한다. 생태적 각성은 우리의 합리적 지식이 환경의 비직선적 성질에 대한 직관과 결합할 때에만 발생한다. 이제 우리는 기계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접근법을 넘어서 전일적이고 생태적인 세계관을 발전시켜야만 한다(Capra, 2009:54-64).

양적 패러다임에서 질적 패러다임으로의 세계관의 변화는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아초월 심리학자인 켄 윌버는 인간이 사물을 인지하는 세가지 통로로 육체의 눈(사물의 형체와 감각의 세계를 인지하는 눈), 마음의 눈(상징과 개념과 언어의 세계를 인지하는 눈), 정관의 눈(영적, 초월적 세계를 인지하는 눈)을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의 눈에 의지하여 사물의 외형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외형너머 보이지 않는 의미의 세계를 보는 지혜가 없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눈(정관의 눈까지를 포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명상이다. 명상meditation은 메테리mederi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치유하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명상이 갖는 치유적인 효과를 함축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명상이란 우리 마음의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고 응축해내기 위한 기술, 삶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진지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명상의 목적은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 분노, 스트레스, 긴장, 불안, 고독, 그리고 죽음의 공포 등의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을 깨달음으로써 그 원인을 해결하자는 것이다(윤종모, 2009:17-108).

시스템이론에 입각한 생태적인 세계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눈, 새로운 태도, 이것이 바로 명상이며 이러한 명상이 에코댄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 창의적 표현

애릭슨(2008:204)은 “인간 내부에는 생각이나 느낌에 청각적, 시각적, 운동감각적, 조형적 형태를 부여하고 또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상존한다. 그게 없다면 그런 생각이나 느낌은 장기 기억의 형태로만 저장되거나 단순히 감각에 얽힌 다음, 차후에는 소멸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감각적 경험에 의한 감성이 단순히 저장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무용으로 형식화하려는 욕구가 ‘창의성’이 될 것이다(한혜리, 2008:95).

무용에서의 창의성이란 인간 개인의 주체성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상황들이 주는 자극에 의한 반응을 말하며, 이것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생각이며, 동시에 문화적 생산으로 연결되는 인간 특유의 자산이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를 의미하며 감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오레지나, 2012:159).

무용은 움직임 요소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즉흥적 요소를 가지고, 개성적으로, 심미적·감정이입적 특성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창의적인 무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무용에서의 창의성은 ① 움직임의 다양한 표현, 변화성, 개성화 등에서 다를 수 있으며 ② 때와 장소, 상황에 어울리는 즉흥적 표현을 기를 수가 있고 ③ 여러 동작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새로운 통합된 움직임(표현)으로 재구성하거나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표현되고 길러진다(김재은, 2007:37).

‘창의적 과정’의 관점에서 창의성은 인지적 과정으로서, ‘곤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Torrance, 1977:재인용)’,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해 내는 정신과정(김영채, 2001:재인용)’으로 정의된다. 창의적 과정이란 문제와 정보에 있어서의 차이, 부족한 요소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 가설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 가능하다면 이러한 가설을 다시 수정하고 재검증하여 최종적인 결과의 제시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오레지나, 2006:9).

에코댄스에서 창의적인 표현은 이러한 창의적 과정을 의미한다. 무용창의성은 “새로운 무용이미지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과 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용창의성은 (1) 움직임 감각, (2) 심미적 감각, (3) 무용사고력, (4) 무용작품구성력, (5) 무용태도, (6) 예술체험으로 구조화된(오레지나, 2012:159). 춤의 특징적 행위는 창조이다. 춤을 구성하고 공연하는 것은 춤의 근본적인 과정이며, 창조하는 것, 그것이 무용존재의 조건이다(김화숙, 2012:143). 따라서 에코댄스의 특징적 행위 또한 창조와 창의적인 표현이

라 할 수 있다.

3) 실천적 삶

21세기의 무용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목표는 취향의 전환이 아닌 의식의 변화에 있다.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술적 사고와 방법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경험을 통한 교육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은 감각적 인지와 상징 그리고 소통의 단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곧, 예술형태로서의 무용이라는 것과 의미가 같다(한혜리, 2008b:11).

각각의 개체가 곧 통합된 전체라는 시스템적 견해는 우리 전통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사회를 지속시키는 윤리가 바로 공동체 의식이며 이러한 공동체의식, 즉 생명에 대한 존중과 나눔이 바로 공동체 삶인 것이다. 각각의 개체가 곧 통합된 하나임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어울림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의식과 공동체 삶은 생태무용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과제인 것이다(오레지나, 2011a:31).

지구는 인류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더더욱 어느 특정집단이나 한 두 사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생태계와 우리의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더 좋은 환경과 사회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에코사이콜로지(Ecopychology)가 지향하는 꿈이다. 에코댄스는 현대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며 생태적인 삶 즉,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생과 힐링의 원리

생태적 몸관관에 기초하여 몸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양생의 첫걸음이다. 양생이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을 말한다. 나를 넘어서 천지와 교감하는 경지이며, 정기신을 닦는 ‘기술지’와 도의 경지를 추구하는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존재와 외부사이에 공감의 지대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자기배려의 기술을 포함한다.

오장육부의 핵심 축은 심장과 신장이다. 심장은 오장육부를 거느리고 주관하며, 우주와 소통하는 관제탑이라 할 수 있다.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 생명의 원천이자 지혜의 근

원이며, 골수와 뼈를 주관한다.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때 신장의 물은 위로 올라가서 연료가 되어주고 심장의 불은 그 연료를 데리고 아래로 내려온다 이를 수승화강水昇火降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음허화동(陰虛火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증상이다. 따라서 양생의 대원칙은 음허화동에서 수승화강으로 몸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체를 많이 써야 한다(고미숙, 2011: 89-251). 곧 디딤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질병은 시대의 투영이며 존재의 표현형식이다. 인간과 인간사이의 소외, 인간과 자연의 단절, 태과불급이 질병을 낳는 것이다.

힐링은 21세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압축 성장으로 경제는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에 속도는 광속으로 빨라졌지만, 무한 경쟁 속에 지친 한국인들은 마음의 치유와 위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10년 전 사회 전반에 불어닥쳤던 ‘웰빙’ 열풍이 이제는 힐링 신드롬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를 강타한 힐링 신드롬을 무한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고립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한다. 행복한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는 시각과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삶의 질의 개념이 변화한 것에 기초한다 하겠다²⁾.

마음의 치유와 위안의 힐링은 리더십에도 적용되고 있다. 겸손하고 자기 성찰적인 힐링형 리더 “힐링형은 리더가 던져준 질문과 기회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치유하고 변화했다는 주도성과 해결성 등 양 요소를 갖추고 있어 효과가 높다.” 전문가들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발전 과정에서 힐링 리더십을 최고로 친다. 1단계가 리더의 지식을 주입하는 해결사형이었다면, 2단계는 리더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가는 소통·공감형, 3단계는 상대의 경험에 대면해 자가 치유를 하는 힐링형 또는 헬퍼형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³⁾.

이처럼 양생에 대한, 힐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몸과 움직임을 이해하고 춤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에코댄스인 것이다.

1) 신장의 음이 약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심장의 불이 제멋대로 망동한다는 뜻
 2) 이은주, 김정은(2012), “무한 경쟁 지친 한국 ‘나도 아프다’ 치유 열풍, ‘힐링’사회 ‘힐링’갈구하다”, 서울신문, 8월 18일.
 3) 이은주(2012), “힐링 리더십”, 서울신문, 2012년 9월 18일.

3. 신명의 원리

신명은 생명의 일깨움이다. 진정한 신명은 자유와 존중이 인정될 때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태극의 상태이며, 나로 온전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신명은 내재적 발현을 통한 자아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당면한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자아를 회복시키며, 창조적인 생성에너지로서 신바람을 일으키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

신명은 자연과의 합일, 내안의 '신성神性'의 일깨움을 통해 '나'를 초월하는 경험이며, 주관의 시간성을 통해 삶을 관조하고 누릴 수 있게 한다. 한恨이란 자아의 손상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이 풀려서 발생하게 되는 신명이란 손상된 자아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진정한 신명은 생명을 소중히 하고 살려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살림의 마음은 삶의 에너지로서 신바람을 일으키며,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며, 공동체를 통해 증폭된다. 한과 멋을 춤 속에서 풀어내는 신명은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상과 현실이 합일을 이루는 미적 체험의 경지, 종교와 예술이 일치된 경지라 할 수 있다(오레지나, 2007:97, 2009:25-27).

따라서 생태적인 춤 에코댄스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신명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놀이의 원리

아기가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장난감에 손을 뻗는 일이다. 먹을 것 외에 아이를 지배하는 유일한 것, 그것은 놀이의 본능이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장난감도 시작되었다. 인류 최초의 장난감은 나무막대기다. 어른들이 들고 사냥을 나가는 것을 보며 그것을 본떠 만든 장난감, 나무막대기. 그 막대기는 도구가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다. BC 2000년경 이집트나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유물에서는 동물 모양 인형과 딸랑이, 소꿉놀이 도구, 공 등이 발견되었다. 모방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 노는 방식은 수만 년 동안 거의 동일하다. 놀이를 즐길 때는 우뇌가 활발히 움직인다. 논리적인 뇌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뇌에는 한계가 없어서 무엇이든 원하는 걸 할 수 있다(Pink, D. 2008:197).

놀이는 자발적 행위이며, 상상의 세계이고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이다. 이 때문에 놀이에는 긴장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발휘되는데 바로 이것에서 놀이의 에너지가 솟아 나온다. 또한 인간의 놀이는 혼자서 할 수 없다. 인간의 놀이는 사회적 현상

이기에 ‘집단’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놀이는 문명을 낳은 토양이 되었다.

호모 사피엔스는 사려가 깊다. 하지만 사려가 깊기에 행동적이지 않다. 호모 파베르는 부지런하고 계산적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쓸모가 있는 대상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호모 루덴스는 기능 충족 이상을 원한다. 그렇기에 호모 루덴스는 기능 목적을 뛰어넘는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으며, 도자기를 만들고 정원을 꾸몄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은 호모 루덴스의 충동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는 생활필수품의 획득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수단으로 즉각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욕구를 넘어서고 있다.

현대를 대표하는 호모 파베르의 눈으로 보면 과거 호모 루덴스의 모든 행위는 불필요한 과잉일 뿐이다. 호모 파베르가 호모 루덴스의 흔적을 지워나가면서 놀이정신 위에 만들어진 문화는 사라져 갔다. 19세기는 경제적 진보를 원했지만,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호모 파베르는 경제적 성과를 문화적 몰락과 교환해야 했던 것이다(노명우, 2011:53-180).

생태영성가 정홍규 신부(2012)⁴⁾는 우리 교육에서 심오한 놀이(deep play⁵⁾는 뒷전에 밀려나 있다고 말하면서 특정 교과만큼 놀이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놀이는 하찮은 오락거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는 방법이며, 놀이를 통해 사회를 배우고 서로 공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몸 놀이가 바로 춤이며, 춤이야말로 우주와의 황홀한 소통이며 사람사이에 공감적 소통방법이므로 심오한 놀이로서 에코댄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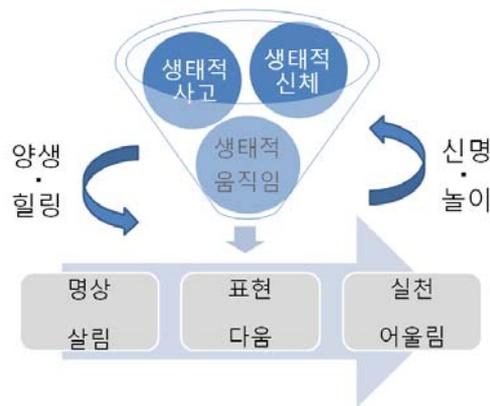


그림 3. 에코댄스의 구성원리

4) 정홍규(2012), “에코댄스 별빛 숲”, 공연 팸플렛, 봉산문화회관 9월 1일.

5) deep play는 G. Rifkin (2004)의 European Dream에서 제시된 용어이다.

IV. 결론 및 제언

에코댄스는 생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움직임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움직임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에코댄스 프로그램은 단순한 움직임의 반복이 아닌 자신의 성찰로서 자연스러운 몸짓을 통해 획득되는 공동체와 자연의 어울림을 실천하는 나눔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에코댄스 프로그램은 에코댄스의 구조(생태적 사고,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를 바탕으로 생태철학과 창의적 표현, 실천적 삶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살림의 정신’과 ‘다음의 표현’, ‘어울림의 실천’이 가능한 무용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에코댄스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명상-표현-실천의 3단 원리, 둘째, 양생과 힐링의 원리, 셋째, 신명의 원리, 넷째, 놀이의 원리이다.

우리의 문화는 문화적 진화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과 합리적, 분석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경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어떤 문화나 문명보다 생물 및 생태적 기반과의 접촉을 상실하였으며, 심각한 반생태적 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기계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접근법을 넘어서 전일적이고 생태적인 세계관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생태예술, 에코댄스의 학문적인 구축과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보(2007),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1-288.
- 고미숙(2011), **동의보감-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서울: 그린비.
- 김영옥(2010), “유아 감성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탐색”,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생태유아교육연구**, Vol.9 No.4, 187-212.
- 김재은(2007), **창의성과 무용교육**, 서울: 한학문화.
- 김정희(2011), “생태문화로서의 예술 이해”, **통일인문학논총**, Vol.51 No. 201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173-203(31).
- 김창수(2008), “생태교육과 생태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열린전북**, Vol.2008 No.1, 70-71.
- 김화숙, 전해리, 한혜리, 오레지나(2012), **Community Dance**,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노명우(2011), **호모 루덴스**, 서울: 사계절.
- 노상우(2003), “생태적 담론의 교육학적 함의(새로운 생태교육관의 모색)”, 한국교육학회, **敎育學研究**, Vol.41 No.1, 2, 1-21.
- 명지원(2003),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태학적 세계관”,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명홀리스틱 교육연구**, Vol.7 No.2, 51-73.
- 문현진, 남상준(2008), “생태적 사회과 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Vol.15 No.3, 41-63.
- 박우찬(2012), “자연과 예술을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술을 만들 전초기지”, **플랫폼, 통권31호**, 138-141.
- 박지영(2010), “생태주의에 기초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순용, 김나영(2010),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Vol.33 No, 165-196.
- 송순재(2002), “자연의 길을 따르는 생명교육”,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생태유아교육연구**, Vol.1 No.1, 1-28.
- 신옥순(2008), “유아교육과정구성의 생태학적 기반 탐색”, **仁川教育大學校 初等教育研究所, 敎育논총**, Vol.28, 69-86.
- 오레지나(2006), “무용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 (2007), “한국춤의 미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8집 2호**, 87-98.
- _____ (2009), “한국무용교육에서 신명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0집 3호**, 19-30.
- _____ (2010), “에코댄스의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제3집**, 51-60.
- _____ (2011a), “생태무용교육의 방향 및 목표”,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제4집**, 25-33.
- _____ (2011b),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2호**, 39-51.
- _____ (2012), “무용창의성 검사 개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1호**, 155-170.

- 오만석(2011), “교육과정 담론의 생태학적 재구성”: 시론, 한국도덕교육학회(구,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道德教育研究**, Vol.23 No.1, 1-30.
- 오요베 카츠히토(及部克人)(2010), “생태적 예술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학연구원 학술대회, Vol.2010 No.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7-30.
- 윤종모(2009), **치유명상**, 서울: 정신세계사.
- 이인화(2010), “생태주의적 음악교육의 방향 설정 모색”: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음악학회,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Vol.45 No. 2010, 71-91.
- 이종태(1999), “대안교육의 철학적 기초 탐색(1) -생태주의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유관기관보고서.
- 이현민, 이상원(2010), “생태예술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 음악극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제23권, 35-49.
- 장미연, 임재택(2010), “생태유아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뇌과학적 고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생태유아교육연구**, Vol.9 No.3, 81-108.
- 장연자(2007), “생태학적 미술교육과정-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조형교육학회, **造形教育**, Vol.29 No, 449-488.
- 한혜리(2008a), “무용의 지역사회교육적 접근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9집 1호**, 1-21.
- _____ (2008b), “무용에서 감성과 창의성의 개념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9집 2호**, 87-98.
- Burns, C. Amelia(2012): “Embodiment and embedment: integrating dance/movement therapy, body psychotherapy, and ecopsychology, *Body, Movement and Dance in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1, 39-54.
- Capra, F.(1982), *The Turning point*, 구윤서, 이성범(역, 2009).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서울: 범양사.
- Hilary, I.(2008), “Mapping Eco-Art Education”, *Canadian Review of Art Education: Research and Issues*, 35, 57-73.
- Pink, D.(2005), *A Whole New Mind*, 김명철(역, 2008).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한국경제신문.
- Rebecca, E.(2007), ‘The Quest for an Ecosomatic Approach to Dance Pedagogy’, *Journal of Dance Education*, 7:3, 80-90.
- EBS(2012), “무연사회”, EBS지식채널 e, 7월 16일 방송